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미술치료 동호회를 신설했습니다. (시행 중인 동호회: 라인댄스, 하모니, 잡담, 자전거, 북아트, 관악기 등)

3월 수요일집회는 손성현 전도사가 '나는 시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성인 및 유아 세례교육이 17일(토) 오후 4시, 입교교육이 24일(토) 오후 4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경기가 25일 오후 3시부터 한강 이촌구장에서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기재된 실천사항을 실천합니다.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3/18식 당 봉 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유주연 김필순 김훈동
 오늘설거지봉사 : 이해령 김정민 하진솔 주경진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떡과 커피 대접 : 김정훈 이진영 (김이울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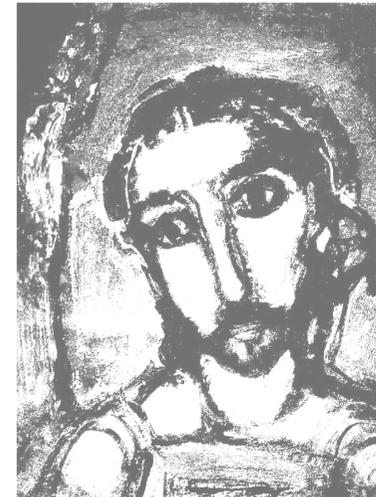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말랐던 가지 끝에 과란 잎사귀가 돌아나고, 검은빛의 대지 위에 초록 새싹이 올라오는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죽임의 기운 가득한 세상에서 스러져가는 것들을 생기로 복돋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혼돈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로 온 세상이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대자연의 붕괴 속도는 빨라지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입니다. 주님, 창조의 첫 아침처럼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조율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상준 최경미 권미정 김명순 이보영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김성한 조영순 김수진B 김순복 전영선 김명순 이보영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혜영 김명순 이보영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최현선 박권동 박시내 박옥식 박운자 박인혁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안세진 오승혜 안종일 정현주 오지영 이광남 이재훈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신영신 이범석 류정욱 이용규 노지현 이광남 이재훈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전영자 전희철 정두리 정재정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조병익 조정연 차혜심 노미향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홍선희 홍순구 안홍희 홍춘숙 무명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감사헌금:

곽혜자 김기석 김희우 김상근 최선미 김순복 김인걸 문영혜 문복순
 최현선 박병규 방문성 박해경 서창희 서효진 정윤성 문송동 문김진
 이나단 이범석 류정욱 이범춘 이우엘 전용정 정선희 조연우 조연우 차혜심
 허명선 무명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생일감사헌금: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녹색꿈헌금:

김남홍 김준우 우순덕 이범석 류정욱 이영란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장원호 박성희 조연우 무명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박미영
최희영	최경미	차혜심	서원금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박경선
정경례	진정숙	이동배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송양상	김희영
박혜경	조향미	심상숙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에서 덜어내야 할 것
 과 마음에 더해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십시오. 탐욕
 과 정죄, 거짓과 미움은 덜어내고 순수와 관용, 진실과 사
 랑은 더하며 사십시오.

 아멘. 마음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더하고, 더해야 할 것은
 덜어내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덜어
 내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주
 님을 기운 삼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나는 시편이다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이혜수 선생
	김기석 목사	한상의 장로	임주빈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조문규 김금순 진정숙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박효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최초의 크리스트 세일즈맨

(마 26:14-27)

유다라면 천하에 몸쓸 배반자라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얼마나 껄뻐했으면 그런 배반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심한 말씀으로 개탄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이천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것은 바로 유다의 후손들이 아닐까요. 유다는 당신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당신의 상업적 가치에 눈뜬 최초의 크리스트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유다가 당신의 육신을 은전 서른 닢에 팔아먹은 후 오늘날까지 장장이천 년 동안 당신에 관한 온갖 것을 사고파는 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기업으로 성장 발달해왔습니다. 성경 말고 세상의 어떤 책이 이천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본뜬 온갖 미술품, 당신을 예배하기 위한 건축물들은 당대의 예술가를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오늘날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관광자원이 되어 유럽 여러 나라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당신을 받아들인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신을 사고파는 데는 그 어느 나라에 뒤질세라 적극적이고 그악스럽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여 분과를 만들고, 신자를 확보하고 신자의 머릿수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교회 장사도 당신의 유관산업 아닙니까. 그 수법에 있어서도 비슷한 내용의 상품을 포장만 바꾸는 상업주의적인 신제품 개발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당신이 태어난 거룩한 날을 기한 소란스러운 축제 분위기와 급조한 이웃 사랑은 바겐세일의 소용돌이와 뭐가 다르니까.

적어도 주일마다 교회에 거르지 않고 나갔으니까 나야 큰 재난을 당하지는 않겠지, 하고 바라거나 수입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헌금했으니 언제

고 몇 곱으로 받을 날이 있겠거니, 은근히 기다리는 평범한 사람의 가장 소박한 믿음도 실은 신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제품의 쓸모가 소문난 대로인가 아닌가 시험해보려는 소비자의 마음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왕성하게 거래되고 흥청망청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모되거나 고갈됨이 없으십니다. 그건 유다가 은전 서른 닢에 팔아넘긴 게 인간의 한계인 당신의 육신일 뿐 당신의 정신이나 신성은 아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신은 안 계신 데가 없으니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 속에서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원히 소모되거나 고갈됨이 없으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까닭은 거래되지 않는 곳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당신의 현존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근면한 노동으로 얻은 소박한 식사를 앞에 놓고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 올리는 감사 기도 속에도 당신은 기꺼이 계시거니와 기름진 음식과 좋은 술을 배가 터지게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밤, 정신의 갈증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필사적으로 마음의 두레박질을 하는 이에 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현존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는 죄인, 애통해하는 에미, 박해받은 의인, 신음하는 병자, 슬퍼하는 선한 이가 아주 없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즐기차게 부활하시어 그들 가운데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고파는 데만 이골이 난 이들도 불쌍히 여기소서.